

“우리는 침묵한다. 서로 충분히 사랑하며 서로 충분히 기쁘게 하길 원하며, 서로를 충분히 알고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며 각자 나름대로 충분히 함께 하며, 충분히 같고, 서로 나란히 오랫동안 고요한 거리를 따라 걷는 두 친구, 그들은 행복하여라. 함께 침묵할 줄 아는 만큼 서로를 사랑하는 두 친구는 행복하여라. 침묵할 줄 아는 나라에서, 우리는 올라가고 있다. 우리는 침묵했다. 오래 전부터 우리는 침묵하고 있었다.”(사를 폐기)

옥색을 띤 바다가 마냥 보고 싶어 달려간 적이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달달 외우던 시절. 몸 밖에서 들리는 소리보다 몸속에서 울리는 심장이 마치 살아 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렇게 현재를 고스란히 벗어버리고 또 다른 현재를 힘껏 껴안기 위한 몸부림으로. 말 속에 존재하는 침묵과 침묵 속에 존재하는 말의 의미를 헤아리기 위해 얼마나 괴로웠던가요. 마냥 달려가 만난 바다의 침묵은 참으로 거대했습니다. 사랑은 말보다는 오히려 침묵이 더 많이 있는 것. 사랑의 여신 아포로디테는 바다 속에서 나왔고, 달의 여신이기도 하지요. 침묵하면서 사랑하기가 더 쉬운 것은 침묵 속에서는 사랑이 가장 멀리까지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하세요. 내가 당신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대도시는 거대한 소음의 저수지’란 걸 망망대해를 보며 깨닫습니다. 온갖 소음의 잔해들을 뒤집어 쓴 탓인지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버린 지 오래. 소음의 파편이 갈긴 상처들. 방바닥에 귀를 바짝 붙이고 혼신을 다해 귀 기울이면 멀리서부터 희미하게 고동치며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소리의 편린들은 퍼즐조각 맞추듯 하나씩 조립돼 갑니다. 방바닥을 지나 땅 속 깊은 곳에서의 울림. 정말 필요한 소음은 그렇게 깊숙하게 묻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침묵은 날카롭게 패인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시간이 약이라지요. 시간에 스며든 침묵은 새로운 하루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군요.

그러나 막스 피카르트는 ‘봄은 겨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봄은 침묵으로부터



온다. 또한 그 침묵으로부터 겨울이 그리고 여름과 가을이 온다'고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노란 개나리가 길옆에 피어있고, 탐스러운 목련이 얼굴을 내밀니다. 꽃이 새에게로, 새는 나무에게로, 나무는 나무에게로 전염되는 침묵의 음(音)들.

그 침묵의 음들 속에서 생성되는 자연은 당신의 얼굴에 깃듭니다. "침묵하고 있을 때면 입의 윤곽은 마치 한 마리의 나비가 날개를 접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윽고 말이 시작되면, 그 날개를 펴고 나비는 날아가 버린다"고 막스 피카르트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얼굴은 침묵과 말 사이의 마지막 경계선이며 인간의 얼굴은 말이 튀어나오는 벽이라고.

말이 튀어나오는 얼굴에서 때론 침묵은 말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침묵 속에는 치유력과 우호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것, 무시무시한 것, 적의에 찬 것, 침묵의 지하로부터 불쑥 튀어나올 수 있는 것, 즉 저승적인 것, 마성적(魔性的)인 것도 있다지요. 파스칼은 "무한한 우

주의 영원한 침묵은 내 영혼 속에 전율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침묵이 마성적이고 저승적인 것은 곧 말 속에 온전한 정신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희랍인이 인간의 본질을 살아 있는 로고스'라고 정의한 대로 인간은 말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이 됩니다. 침묵으로부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말에 의해서 침묵은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

막스 피카르트는 《침묵의 세계》를 열면서 "침묵은 하나의 원현상(原現象)"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무것도 원초적으로 주어져있음을 의미하죠. 사랑, 믿음, 죽음, 생명 등과 마찬가지로 침묵도 본래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다른 원현상 중에서 침묵은 가장 먼저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인간은 고뇌 속에서 탄식하지만, 그것은 침묵이 탄식하는 것과 같다. 눈물의 강 위를 지나서 인간은 침묵 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

정윤희 기자